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濟州 石像에 관한 研究
— 墓所의 童子石을 中心으로 —

彫 塑 科
趙 允 得

1987



濟州 石像에 관한 研究

— 墓所의 童子石을 中心으로 —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87年 5月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彫塑科 趙允得

趙允得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姜 泰 成



審査委員

崔 泰 均



金 鳳 九



朴 忠 欽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目 次

論文概要	ix
I. 序 論	1
A. 연구의 目的	1
B. 연구의 內容	2
C. 연구의 方法	2
II. 童子石의 이론적 배경	3
A. 童子石의 形成	3
B. 童子石에 나타난 宇宙觀	10
C. 童子石의 機能	15
III. 童子石의 造形性	19
IV. 結 論	47
參考文獻	48
英文抄錄	51

圖 表 目 次

圖

1 . 墓의 石物配置圖	31
2 . 墓의 石物配置圖	31
3 . 濟州市 吾羅洞, 童子石, 文人石	32
4 . 溫陽民俗博物館, 童子石, 童子石	32
5 . 溫陽民俗博物館, 文人石	32
6 .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文人石	32
7 . 耽羅木石苑, 文人石	32
8 . 耽羅木石苑, 文人石	32
9 . 耽羅木石苑, 文人石	33
10 . 耽羅木石苑, 文人石	33
11 . 北濟州郡 朝天面 橋來里	33
12 .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將軍石	33
13 .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望柱石	33
14 .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望柱石	33
15 . 산담	34
16 . 耽羅木石苑, 童子石	34
17 . 耽羅木石苑, 童子石	34
18 . 耽羅木石苑	34
19 .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34
20 . 濟州市 吾羅洞 (도 66 의 部分)	34
21 . 耽羅木石苑	35

22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35
23 .	南濟州郡 表善面 三達里	35
24 .	耽羅木石苑	35
25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35
26 .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35
27 .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36
28 .	耽羅木石苑	36
29 .	耽羅木石苑	36
30 .	耽羅木石苑	36
31 .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36
32 .	耽羅木石苑	36
33 .	耽羅木石苑	37
34 .	耽羅木石苑	37
35 .	耽羅木石苑	37
36 .	耽羅木石苑	37
37 .	耽羅木石苑	37
38 .	西歸浦市 好近洞	37
39 .	北濟州郡 朝天面	38
40 .	耽羅木石苑	38
41 .	西歸浦市 好近洞	38
42 .	耽羅木石苑	38
43 .	耽羅木石苑	38
44 .	耽羅木石苑	38
45 .	濟州市 吾羅洞 (도 66 의 部分)	39

46 .	濟州市 吾羅洞 (도 3 의 部分)	39
47 .	耽羅木石苑	39
48 .	北濟州郡 朝天面	39
49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39
50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39
51 .	耽羅木石苑	40
52 .	濟州大學校	40
53 .	濟州大學校 (도 65 의 後面)	40
54 .	耽羅木石苑 (도 61 의 後面)	40
55 .	耽羅木石苑 (도 43 의 後面)	40
56 .	濟州大學校 (도 86 의 後面)	40
57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41
58 .	濟州大學校 (도 81 의 後面)	41
59 .	耽羅木石苑 (도 47 의 後面)	41
60 .	耽羅木石苑 (도 89 의 後面)	41
61 .	耽羅木石苑	41
62 .	耽羅木石苑	41
63 .	濟州大學校	42
64 .	北濟州郡 朝天面	42
65 .	濟州大學校	42
66 .	濟州市 吾羅洞	42
67 .	濟州市 吾羅洞 (도 3 의 部分)	42
68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42
69 .	耽羅木石苑	43

70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43
71 .	耽羅木石苑	43
72 .	耽羅木石苑	43
73 .	耽羅木石苑	43
74 .	耽羅木石苑	43
75 .	濟州大學校	44
76 .	濟州大學校	44
77 .	濟州市 蓮洞	44
78 .	耽羅木石苑	44
79 .	耽羅木石苑	44
80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도 70 의 부분)	44
81 .	濟州大學校	45
82 .	耽羅木石苑	45
83 .	耽羅木石苑	45
84 .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45
85 .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45
86 .	濟州大學校	45
87 .	耽羅木石苑	46
88 .	耽羅木石苑	46
89 .	耽羅木石苑	46
90 .	耽羅木石苑 (도 89 의 側面)	46
91 .	濟州市 吾羅洞 (도 67 의 側面)	46
92 .	濟州市 我羅洞	46

表

1. 身長과 頭部の 比例表	20
2. 한국인의 身體 比例表	21

論 文 概 要

濟州의 民俗文化 중 墓所의 童子石은 오랜 역사를 통해 風水思想 및 土俗的 信仰과 함께 전해져 내려오면서 基層文化에서 형성된 石像이다.

童子石은 제주의 풍토, 기질과 생활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조형방법과 형태면에서 볼 때 독창성이 있으며 그 시대적 상황에 따른 彫刻樣式과 조형상의 특징도 살필 수 있으므로 本研究의 동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童子石의 형태를 造形的으로 分析하여 濟州 石像의 造形性を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의 내용은 濟州 墓所의 石像 중 童子石에 限하여 形成과 石像에 나타난 宇宙觀 및 機能을 고찰하고 童子石의 형태를 造形的으로 分析하여 그 特性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과 작품을 기본도구로 하여 現地踏査를 중심으로 한 작품의 조형성 고찰이 그 基調를 이루며 造形性이 비교적 뚜렷하여 造形特性을 밝히기에 용이한 작품 63 점을 有意標集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으로 童子石은 頭部를 강조하였고 단순한 형태와 부분에 있어 線刻處理를 하였으며, 좌우대칭 구도 속에서 전체적 부분적으로 과장하고 대담하게 변형하거나 생략하는 조형적 특징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I . 序 論

오늘날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나 基層文化遺産 중 民間 墓所의 石物에 관하여는 脫文明的이라는 관점으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단지 墓를 장식하는 부속물로서만 간주되고 있다.

제주의 민속 문화 중 墓所의 童子石은 風水思想과 土俗的 信仰과 함께 전해져 내려왔으며 조형방법과 형태면에서 볼 때 造形的 價値가 있는 石像이다.

이러한 石像이 오늘날 한국 미술에서 한 장르로서 인정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헌자료나 연구논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童子石의 意義와 조형적 가치를 밝힌다는 일은 그 속에 內在하는 濟州民의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 당시의 민간 조각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더 나아가 朝鮮時代의 彫刻이 新羅, 高麗時代의 것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만 평가되었던 점을 민간의 童子石을 통해 시대적 상황에 따른 조각양식과 조형상의 특징도 살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A . 연구의 目的

본 연구의 목적은 童子石의 형태를 造形的으로 分析하여 濟州 石像의 造形性을 규명하고자 한다.

B . 연구의 內容

본 연구의 내용은 濟州 墓所 앞에 세워진 童子石의 형성과 石像에 나타난 우주관 및 기능을 고찰하고 童子石의 형태를 造形的으로 分析하여 童子石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C . 연구의 方法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배경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하였고 현지답사를 통한 조형성 고찰이 그 基調를 이룬다. 작품의 표집은 비교적 조형성이 뚜렷하여 造形特性을 밝히기에 용이한 작품으로 총 63점을 有意標集하였다.

Ⅱ. 童子石의 이론적 배경

A. 石像의 形成

1. 石像의 起源

本 研究의 資料가 되는 童子石은 童子의 形象으로 만들어 무덤 앞에 세우는 石像이다. 濟州 墓所의 童子石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살피기 위해 우리나라 王陵에 배치된 石物의 由來부터 고찰해 보겠다.

陵 주변에 石物이 놓인 形式은 中國의 春秋時代에 행해지던 厚葬의 風習에 따라 일어났고 이는 屍體를 지킨다는 意味를 갖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陵에 石物을 세우는 風習은 唐으로 부터 統一新羅時代에 전래되었다. 古新羅時代에는 무덤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가 점차 自然石을 놓았고, 統一新羅時代에는 封墳을 받치는 돌에 12支像이 새겨진 護石과 石獅子·文石·武石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形式은 高麗, 朝鮮時代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데 단지 高麗, 朝鮮時代에는 文·武人石, 石羊, 石虎, 石馬로 변화되었다.¹

高麗時代에는 朱子學이 전래되어 墓地와 葬禮 習俗에 영향을 미쳐 王室 뿐만 아니라 士大夫 階層에서도 호화 장례가 盛行되었으며 또 墓의 表儀物을 많이 세웠는데 특히 조선시대에는 朱子家禮가 儒敎 文化와 併合하면서 石物을 세우는 風習이 流行하였다.

¹ 이 찬우 (1985), “ 朝鮮時代의 文武人石에 關한 研究 : 王陵을 中心으로 ,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 i.

그 예로 洪吉童傳을 보면 “제인이 비감(悲感)하여 하더라 잊흔날
길동이 월봉산(月峰山)의 드러가 일장(一張) 티지(大地)를 엮고
산역(山役)을 시작하되 석물(石物)을 국능(國陵)과 갖치하고, 일
척티선(一隻大船)을 준비하여 도선국 서강(西江) 강변으로 티후
(待候)하라 하고 즉시 삭발위승(削髮爲僧)하여 일엽쇼선(一葉小船)
을 타고 도선으로 향하니라”² 라고 하였다.

洪吉童傳은 光海君(1608~1623) 때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 民間에서 墓에 石物을 세우는 일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王을 侍衛하는 사람이 文官, 武官이므로 王陵에 文武
人石을 세워 권력을 상징하며 陵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졌으나 地方
豪族들은 文武人石과 石獸를 세울 수 없으므로 王陵의 護石을 略化
하여 세우는 形式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形式에 준할 때 士大夫와 一
般 庶民層에서는 그들을 시중드는 사람들이 下人, 童子, 童僕이므로
벼슬을 가진 階層의 사람들은 주로 墓에 童子石을 세웠다.

濟州島에는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 流配地로서 中央朝廷의 品官以上
의 顯官後裔들이 많았기 때문에³ 祖上崇拜하는 관념이 강했고 儒教
的 生活樣式이 깊숙히 뿌리 박고 있어 先墓에 碑石을 세우고 童子
石, 文人石, 將軍石을 세우는 풍습이 있었다.

金 榮敦⁴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石像이라 할 수 있는 돌하르방도

² 「洪吉童傳, 沈清傳」, 장 지영(역) (서울: 정음사), 1964, p. 68

³ 김 종업, “歷史的으로 본 墳墓의 變遷過程,” 「제주도」, 제 27
호 (1966년 10월), p. 61.

⁴ 김 영돈 (1972), “濟州·大靜·旌義 州縣城의 石像,” 「文化人
類學」, 제 5집, p. 34.

童子石, 望柱石, 將軍石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명칭은 무덤 앞의 童子石과 그 形象이나 機能이 비슷한데서 연유한 이름으로 一貫性이 없다고 하였다. 또, 李 鍾哲⁵도 경북과 제주에서 장승이 童子石이라고 불리는 예를 들고 있다.

이렇게 경북의 장승과 제주의 돌하르방이 墓所의 石像의 명칭인 童子石, 望柱石, 將軍石 등의 이름으로 혼용되어 불린 예가 있으나 本研究에서의 童子石은 墓所 앞에 세우는 石像만을 가리킨다.

墓에 石像이 세워진 年代는 碑石을 세운 年代와 同一할 수도 있지만 子孫들이 葬禮 後 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年代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亡人이 사망한 때와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할 때 碑文에서 童子石이 세워진 年代를 추정할 수 있다.

濟州에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러한 石像이 세워졌으며 어떤 벼슬 이상이면 세울 수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南濟州郡 表善面에 있는 通政大夫玄公之墓의 碑文⁶에 高麗 明宗때로 새겨진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세워졌다고 보여진다. 朝鮮時代에 행정력이 약화됨에 따라 立地的 條件이 특수한 濟州島에서는 특정한 규범이 무시되어 자유 분방하게, 또 富와 권력을 상징하며 墓를 보호하는 思想에서 백성들도 흔하게 세웠다. 일반적으로 벼슬을 하지 않은 亡人을 존칭하여 學生이라 부르는데 南濟州郡 表善面 三達里에 있

⁵ 이 종철 (1982), “ 장승信仰에 關한 研究, ”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 18.

⁶ “ …高麗明宗朝門下侍郎諱覃鳳之後… ”.

는 學生韓應伍之墓에 동자석을 세운 예를 비롯하여 제주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일반 墓에도 동자석을 세운 예가 많다.

童子石이 세워진 양식을 보면 기본양식이 대부분 墓 전방에 엄격한 左右對稱을 지켜서 童子石 1쌍을 배치하고 그 뒤에 望柱石 1쌍을 左右로 세운다.(도 1) 벼슬이 높은 사람일 경우는 童子石 뒤에 童子石보다 키가 큰 文人石을 세우고, 또 그 뒤 산담 바로 안쪽에 望柱石 1쌍을 대칭으로 세우는 것이 常例이다.(도 2) 특이한 경우로 吾羅井實에 있는 墓에는 양쪽에 文人石 1基와 童子石 2基(도 3)를 나란히 배치하여 총 6基를 세운 예도 있다.

濟州의 墓制에 있어서는 陸地와 共通點을 가지면서도 濟州의 生活樣式과 특수한 風土와 歷史的 條件아래 濟州 特有的 性格이 나타나고 있다.

陸地의 童子石(도 4)의 경우 대부분 머리 양쪽에 동그랗게 結髮 지은 雙髮을 이루고 있지만 濟州의 童子石은 그러한 예가 전혀 없다. 陸地의 동자석들은 전체 형태가 대부분 圓柱形을 이루고 있으며 人體를 사실적으로 충실히 묘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의습이 形式化되었고 신체의 하반신의 表現과 基石을 만든 예가 많다.

濟州의 童子石들은 正面性を 위주로 한 硬直된 자세는 陸地의 동자석과 共通的이나 전체적 형태는 四角柱形, 圓柱形으로 樣式化되었고 基石이 없을 뿐만 아니라 下半身을 생략하여 발을 표현한 예가 없다. 笏의 형태에 있어서도 변형된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한 수법으로 處理된 것으로 보아 形式上的 規範이 무시되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文人石에 있어서도 陸地의 文人石(도 5)은 紗帽와 官服, 笏을 모

두 갖춘 형태로 의습이 거의 통일되어 硬直되고 形式化되었으나, 濟州의 文人石(도 6, 도 7, 도 8, 도 9, 도 10, 도 11)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석에 頭部만 표현하여 文人石임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紗帽와 官服을 모두 略化하여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여 제주 特有의 樣式을 보이고 있다.

제주 墓所의 石人像으로는 대부분 童子石과 文人石을 세우고 있으나 특수한 一例로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에 있는 將軍石(도 12) 1基는 南濟州郡 中文面 道順里 무덤 앞 左右에 세워졌던 것으로 그 中 1基는 완전히 파손되어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 외에 墓所 앞에 세우는 將軍石은 찾아볼 수 없다. 陸地의 將軍石들은 鬼面像의 얼굴과 육중한 갑옷으로 엄격한 용모를 갖추고 있으나 이 將軍石은 제주민들 나름대로 힘이 센 武將을 상징하며 권력에 의존하여 安寧을 구하려는 의도에서 세워진 武人의 형상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墓地의 石物 中 望柱石은 무덤 앞 左右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을 말하며 돌받침 위에 여덟 모진 기둥을 세우고 맨 위에 둥근 머리를 얹은 것이다. 望頭石, 望柱石表, 華表柱와 같은 뜻이며 望柱 望石이라고도 부른다. 石柱를 세우는 樣式은 Altai Vaikal 지방에서 死者의 記念으로 墓地나 그 주변에 Totem pole을 세웠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라 王陵에서부터 보이는데 “望柱石은 墓를 지킴으로써 古人의 넋이 새가 되어 평화롭게 안식한다”⁷는 의미를 내포한 상징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주의 望柱石(도 13, 도 14) 역시 기원 숭배의 대상으로서 솟대

⁷ W. E. Griffis (1985), 「隱者の 나라 韓國」(서울:평민사), p. 354.

와 같은 立竿習俗의 의미와 상통하고 形態가 제주의 돌하르방이나 육지의 석장승의 전체적인 윤곽과 비슷하며 陰陽法의 陽性의 象徵으로서 Phallicism의 영향도 컸다고 하겠다.

제주 墓所의 童子石, 文人石, 將軍石, 望柱石은 육지 墓所의 石物에 基礎를 두고 있으나 제주는 육지와 政治, 文化圈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교류가 어려웠고 제주지역만이 지니고 있던 독특한 生活樣式과 濟州民의 감정이 濟州 石像에 독자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技法이나 表現된 樣式에서 볼 때 제주 特有의 性格을 가지면서 제주지역에서 自生的으로 發達한 形態를 갖추게 되었다.

濟州 墓所의 石像들은 일정한 形式이나 規範이 없이 민간에서 만들어졌으므로 濟州內에서도 地域, 材質 또는 製作者에 따라 그 形態와 技法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童子石의 製作者는 王陵의 文武人石을 만드는 숙련된 匠人과는 달리 濟州의 민간에서 碑石을 만드는 石手라고 생각된다. 이 石手들이 돌하르방도 製作했으리라 짐작되는 예로서 옛 제주의 三縣城 중 大靜과 旌義의 돌하르방은 그 지역의 童子石과 매우 유사한 形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돌하르방과 종적, 횡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童子石과 環境과의 關係

濟州의 文化란 제주도라는 自然的, 歷史的 條件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이루어진 島民의 基層生活樣式으로서 거기에는 島民의 숨결과 피의 흐름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제주의 文化란 제주의 자연환

경, 역사조건 속에 생겨난 傳統이라는 맥락하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의 文化的 전통이 곧 한국적 전통 속에서 形成되고 발전되어 왔으므로 향토문화에 대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찾고 전통문화에 깃들인 우리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 나라 그 地域의 자연환경이나 생활 방식은 그 民族의 文化 內容이나 性格에 영향을 주게 된다.

天惠의 자연환경을 가진 濟州島는 경사가 완만한 漢拏山을 중심으로 360여개의 오름⁸들이 부드러운 능선으로 둥글고 큰 무덤들을 이루고, 조그만 초가집의 곡선도 그것을 따르며 무덤의 線 또한 부드러워 제주의 자연은 크고 작은 부드러운 곡선의 반복으로 율동적인 힘을 가지면서 평화로움과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친밀감, 만족감은 결국 제주민의 思想이나 感情에 영향을 미치어 島民들은 아름다운 自然 속에서 자연환경을 정복하려는 저항적인 태도가 아닌 대자연의 혜택에 順應하는 자세로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순박한 美를 창출하고 제주 고유의 民俗文化를 形成하게 되었다.

濟州 民俗文化 중 童子石은 人爲的이면서도 주위 환경이나 自然과 同化되어 세월의 흐름에 따라 玄武岩에 풍화의 흔적을 남기며 환경과의 관련을 맺고 있다.

濟州의 童子石들은 모두 石材로 이루어졌는데 그 까닭은 첫째로, 王陵의 文武人石이 돌로 이루어져 自然의 風化에 견딜 수 있도록 하

⁸ “오름,” 「濟州年鑑」, 1976, 제주연감사, p. 121. 側火山, 寄生火山, 소규모의 山峰을 제주에서는 오름이라 부름.

는데서 답습한 것이고 둘째로, 제주도가 石多의 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童子石의 기본 석질은 주로 多空質의 玄武岩과 南濟州郡 安德面 山房山 부근의 安山岩質 粗面岩과 南濟州郡 東上孝의 粗面岩으로 이루어져 있다.

安山岩質 粗面岩과 粗面岩은 SiO_2 의 함량으로 보아 中性岩質 岩石에 속하는데 고온고압(1100℃~1200℃)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石質이 약하여 돌을 깎고 다듬는데 비교적 정교하게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자가 조밀한 非晶質로서 조각할 때 섬세한 처리까지도 가능하나 반면에 풍화에 약한 短點을 가지고 있다.

제주 전역에 있는 玄武岩은 제주도의 民具類, 石具, 돌하르방, 돌담 산담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童子石의 主材料이기도 하다. 童子石이 섬세하지 않고 소박한 것은 氣孔이 많고 風化에 약한 玄武岩이 갖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B. 童子石에 나타난 宇宙觀

1. 風水思想

韓國의 傳統文化를 支配하는 要素로는 Shamanism과 儒教를 들 수 있다. 儒教文化가 특히 上流社會에 영향을 미친데 대하여 Shamanism은 韓國文化의 原始的 土着的인 要素로서 庶民社會에 커다란 정신적 작용을 하였는데, 유교와 Shamanism은 獨立的이 아니라 結合된 形態로 사회 계층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고려왕조는 開國과 더불어 風水地理思想이 널리 퍼졌으며 高麗政策

上의 諸誠的인 太祖가 내세운 訓要十條에서도 圖織과 風水說에 의하여 국가 통치의 방향을 규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풍수사상은 山川, 水流의 모양을 인간의 길흉화복에 직결시켜 설명하는 것인데 高麗 王陵도 이러한 思想에서 名堂을 찾아 이루어졌으며 고려시대에는 호화장례는 물론 名堂을 찾아 移葬하는 풍습이 盛行하여 王家, 士大夫는 물론 庶民에 이르기까지 신봉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崇儒政策으로 儒敎式埋葬을 하였는데 圖織說 내지 풍수지리설이 크게 작용하였다. 조선시대의 상류층에서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조상의 陰宅과 陽宅을 求하는데 많은 재물을 탕진하였으며,⁹ 사대부 및 一般庶民도 풍수사상에 의하여 묘자리가 좋지 않다 하여 移葬하는 일이 많았다.

濟州島에서는 그 立地的 環境의 惡條件 속에서 불행한 일생을 살아야 했던 제주도민은 이러한 섬의 限界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찌기 風水思想에 至大한 관심을 가졌다. “풍수가 인간의 興亡을 決定짓는다는 신앙은 사람들을 運命論的인 思考 속으로 몰아넣었는데”¹⁰ 이러한 思考는 島民에게 있어서는 가장 보편적인 自求的 手段이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고난을 宿命的인 것으로 알고 受容했던 “島民들은 子孫이나마 그런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名堂을 찾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으므로”¹¹ 풍수관념이 陸地에 비해 더 강했고 俗信 또한 盛行했는데 모두 現實的인 의식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⁹ 「家庭儀禮大百科」, 1983 (서울: 한도문화사), p. 32.

¹⁰ 임 홍선 (1983), “제주도 전설에 드러난 제주도민의 의식 연구,” 송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 19.

¹¹ 앞 글, p. 30.

島民들은 조상숭배의 風習을 가져 8월 절기가 시작되면 자손들이 先墓를 찾고 伐草를 하는데 이를 掃墳이라고 하여 잘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묘자리의 吉凶이 後孫의 興亡과 직결된다고 믿는 島民은 骨塚¹²을 보게 되면 “묘자리를 잘못 선택하여 後代가 끊겼다고 믿고 있다.”¹³ 그러므로 조상을 靑龍 白虎 名堂에 모시고 조상의 屍體를 보다 安全하게 保存함으로써 自己 및 자손에게 發福하기를 염원하였다. “결국 屍體保存欲求와 生死者의 互惠觀念이 相通하며”¹⁴ 풍수사상은 祖上崇拜와 孝의 思想에서 비롯된 것이다.

풍수사상의 盛行은 吉地에서 發福이 있을 것이라고 믿듯이 凶地에서 災禍가 생기는 것으로 믿어, 吉地라면 營農에 障礙가 될지라도 경작지에 墓를 정할 뿐만 아니라 遷離한다고 하여 移葬하는 風習을 낳았다.

그리하여 제주도에는 산등성이, 오름은 물론 耕作地 곳곳에 무덤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무덤들은 玄武岩으로 둘러 쌓여진 산담¹⁵들로 하여 제주만의 이색적인 풍경을 이룬다.(도 15)

¹² “골총” 벌초를 하지 않아 잡초가 우거진 산소를 말한다.

¹³ 진 성기 (1975), 「남국의 민속 : 제주도 무속」 (서울 : 교학사) p. 271 .

¹⁴ 현 용준, “宗教民俗面에서 본 暗埋葬의 改善,” 「제주도」, 제 27 호 (1966 년 10 월), p. 85 .

¹⁵ “산담” 제주도에서 墓의 주변에 圓形 또는 方形으로 무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을 두른 것을 말한다. 이 산담은 세가지 역할을 갖는데 첫째, 산불의 피해를 방지하고 둘째, 방목 중인 마소의 침입을 막고 셋째, 墳墓의 경계를 정함으로써 耕作者가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다.

2. 死靈觀

모든 民族은 原始 때 부터 共通的으로 인간을 肉體와 靈魂의 二元論的 存在로 보았다. 그래서 肉體와 靈魂이 밀착되어 있을 때는 生時요, 靈魂이 肉體에서 遊離된 狀態는 死라 해석하였다.¹⁶

島民들은 魂魄이 육체를 떠날 때는 배를 타고 江을 건넌다고 생각하여 屍體를 埋葬할 때 엽전 7 푼을 함께 副葬했는데 엽전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죽음의 저 쪽 세계로 실어다 주는 배삯임을 의미한다. 배가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수단이라는 관념은 Egypt의 特有한 宇宙觀 또는 오늘날 Shamanism에서 행해지는 巫女들이 큰 광목을 깔고 배를 띄우는 모습과 일맥상통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靈魂不滅의 思想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死者는 冥界에서도 現世와 同一한 精神的 物質的 生活을 계속한다는 우주관을 파악할 수 있다.

濟州島 민간에서는 靈魂에 대한 觀念이 佛教와 巫俗과 관련이 깊어 사람에게는 살아있을 때나 三魂 七魄이 있다는 佛教에 根源한 觀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죽은 후에는 “영혼의 하나는 저승에 가고, 또 하나는 육신을 지키고, 나머지 하나는 이승과 저승을 오락가락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子孫의 꿈에 나타나서 여러가지 對話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¹⁷ 여기서 “靈魂은 마치 그림자처럼 형체가 없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出入하고 移動할 수 있다고”¹⁸ 생각한데서 島民들은 墓所에 “산담을 쌓다가 <시문>이라 해서 女墓는 右側에,

¹⁶ 앞 글, p. 80.

¹⁷ 진 성기 (1980), 「남국의 신화」 (서울: 평범사), p. 162.

¹⁸ 현 용준 (1966), p. 80.

男墓는 左側에 50 cm쯤을 터 놓는데 神이 출입하는 出入口라 說明되고 있다.”¹⁹ 이 <시문>을 神門, 神道라 부르기도 하는데 靈魂은 超空間的이고 超越的으로 不滅한다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記述한 三魂과 墓所의 童子石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墓所에서 서식하며 죽은 사람의 肉身을 지키는 靈魂의 구체적인 表象으로서의 童子石은 死者를 보좌하고 수호하는 역할과 죽은 사람의 영혼의 계시를 받고 심부름을 하며 靈界와 교류하는 象徵的인 형상으로 墓域에 서 있는 것이다.

인간은 공통적으로 死後世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다. 또 현실 생활의 根源으로서 하나의 원초적인 實在世界の 존재를 믿고 있는데 그 세계는 현재의 그들의 社會와 有機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濟州島民은 되도록 자기 祖上의 영혼이라 할 지라도 日常時에는 멀리 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死靈과 인간과의 사이가 가깝게 되면 사람들은 이승길은 멀어지고 저승길과 점점 가깝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²⁰ “他界의 영혼의 생활은 生時의 現世生活의 연장”²¹으로 對人關係도 生時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 互惠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관념이 葬禮儀式, 祭祀儀式, 死者婚, 副葬 등 여러가지 濟州의 習俗을 형성시킨 바탕이 되었다.

위에서 民間信仰에서 비롯한 風水, Shamanism, 死靈觀을 살펴보았다.

¹⁹ 제주도교육연구원 (1983), 「 옛제주의 민속, 세시풍속, 민요 」 (제주 : 제주도교육연구원), p. 53.

²⁰ 진 성기 (1975), p. 200.

²¹ 현 용준 (1966), p. 82.

儒敎의 孝나 조상숭배 사상이 한국 민중의 중요한 정신적 信念의 바탕이 된 것은, 그 이면에 작용하는 人間과 死靈을 一致 調和시킴으로써 人間생활의 福利를 추구하고자 하는 巫俗的인 의식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C. 童子石의 機能

民間藝術은 단순히 보는 사람에게 심미적인 만족감을 주려고 表現된 것이 아니라 生活과 信仰의 不可分の 關係에서 擲겨진 結晶體이다.

예술의 機能이 감정을 표현하고 理解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풍수사상 및 土俗的 信仰과 함께 전해져 내려온 童子石은 죽음의 신비롭고 두려운 世界와 靈을 둘에 구체적인 形式을 갖추어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그 根柢에 깔린 心性은 靈界와의 交流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모태로 하여 태어난 童子石은 바로 生活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墓所의 童子石은 단지 墓를 장식하는 造形物이 아니라 超自然的인 힘을 그들의 現實 世界로 실재화 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분명한 주제를 갖고 표현된 작품이요, 종교요 곧 生活이라고 말할 수 있다.

童子石은 앞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風水地理思想 및 儒敎의 영향을 받고 墓를 호위하는 機能을 해오다가 그 후 제주의 風土와 時代와 社會의 변모에 따라 주술적인 機能도 갖게 되었는데 이 章에서는 그 機能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奉仕者로서의 機能을 갖는다. 古代의 殉葬의 風習에서 死

者가 生前에 쓰던 물건이나 데리고 있던 下人을 함께 埋葬했던 것은 死後 世界에서도 現實과 마찬가지로 같은 精神的 物質的 生活을 할 것이라는 내세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죽은 사람에 대한 奉仕者의 역할을 가졌던 彫像으로서 中國의 墓에서 출토된 土偶나 삼국시대의 新羅에서 副葬品으로 사용했던 土偶 등이 있다. 고려·조선시대에 陵墓에 묻힌 被葬者가 生時에 王이나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 같으면 그의 司僕의 모습을 본 뜬 石像을 세워 死後에 까지 그를 보좌하고 奉仕하도록 했던 의미와 마찬가지로 濟州에서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죽은 후 저승에서 그 死者를 모시는 侍者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물론 제주에 고려, 조선에 걸쳐 고관직의 流配人들이 많았으나 墓를 王의 陵처럼 크게 할 수도 없었거니와 士大夫, 地方豪族이라 할 지라도 石物을 많이 배치할 수 없으므로 童子·童僕의 形象으로서 童子像을 만들어 세웠다. 童子는 神域인 산담 안에서 靈界와 교섭하는 死者의 심부름꾼인 것이다. 그 예로써 도 16, 도 17의 童子石들은 잔과 병을 들고 있는데 이는 死者에게 茶나 甘露酒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奉仕者, 侍者로서의 童子石을 세웠던 것은 살아있을 때의 권위나 사치를 저 세상까지 누리고 싶었던 욕망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로, 守護神的인 機能을 가진다. 무덤 앞 양쪽에 서로 마주 보며 엄격하게 서 있는 童子石은 邪氣를 防禦하고 다른 잡귀가 死者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墓域을 지키며 守護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島民들은 동자석을 통해서 死者가 저 세상에서 安全하게 있다고 믿고 위안을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마을에 守護神을 모시는 山神堂, 城隍堂이 있고 마을 어귀에 長丞과 솟대와 돌무더기 石積이 있으며 또 제주에는 城門앞, 마을입구에 있는 돌하르방과 무덤의 동자석은 모두 잡신을 방어하는 守護神的인 機能을 가진다.

셋째로, 呪術的인 機能을 가진다. 제주에는 俗信의 對象으로 自然形態의 析子石과 인위로 조각된 析子石 그리고 資福, 資福彌勒, 彌勒佛, 큰어른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東彌勒²²과 西彌勒²³인 彌勒菩薩像이 2基가 있어 正月初에 자식들의 壽命長壽와 析子を 빌었는데 특히 西彌勒 옆에는 童子彌勒 또는 동자보살이라고 하는 男根石이 있어 生殖神으로 여기에 걸터앉아 자식낳기를 기원하였다. 부녀자들은 또한 童子石을 俗信의 對像으로 섬겨 童子石의 코를 갈아먹음으로써 자식 낳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또 학질이 걸렸을 때 童子石의 코를 갈아 먹으면 特効라는 말도 전한다.

그리고 제주의 옛 대문 역할을 하였던 정주목²⁴이나 돌하르방과 마찬가지로 童子石을 超自然的 신비력이 있는 聖像으로 여겨 畏敬시 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민간 풍습이 있어 함부로 옮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移葬하거나 墓를 없앨 때에는 童子石을 땅에 묻어버렸다. 또 “本 島民은 일반적으로 墓地發福의 休囚라는 것을 믿고 있다. 墓地에는 入葬 後 30년 내지 50년 혹은 100년간 發福하다가 休息

²² 濟州市 健入洞 1275번지 玄明澤氏宅 所在.

²³ 濟州市 龍潭洞 龍華寺 所在.

²⁴ “正柱木”民家の 出入路에 설치했던 옛 제주의 대문으로 四角柱形의 돌이나 나무기둥에 구멍을 2~5개 뚫어 나무(정낭)를 가로지르게 하여 牛馬나 外人의 出入을 막는다.

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休囚라 한다.”²⁵ 이러한 休囚의 사상은 墓地가 休囚期가 되면 동자석 또한 그 機能을 상실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童子石을 묻어 버리는 것 같다.

이와 같이 童子石은 분명한 주제를 갖고 제작되었던 것이다. 死者에 대한 奉仕者 및 守護神 역할과, 조상숭배에 관한 그들 나름대로의 源初意識과 呪術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要素를 지니고 있으므로 동자석은 外形적인 장식보다도 주술적인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機能 또한 장승의 機能과 상통한 점이 많다.

²⁵ 진 성기 (1975), p. 205.

Ⅲ. 童子石의 造形性

童子石의 本意는 순수예술개념에서 造形美를 추구하기 보다는 墓儀石物로서의 格式을 갖추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童子의 形象을 表現한 野外造形物로서 造形的으로 分析하여 童子石이 가진 造形的 特性을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童子石의 전체적 인상은 엄격한 不動의 자세로 서있기 때문에 모두 유사한 양식으로 보이지만 材質에 따라, 製作者에 따라 그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民俗的 성격을 띠며 民間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동자석의 형태는 모두 단순하며 인체를 표현한 具象的인 조각이나 象徴的인 의미와 守護神的인 目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전체적인 형태가 誇張되고 歪曲되기도 하여 사실적인 표현에서 變形된 표현에 이르기까지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研究에서는 동자석에 나타난 특성을 추출하여 고찰해 보겠다.

童子石의 全體的인 構造는 머리 部分과 胴體 部分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머리 部分에는 人相을 表現하였고, 胴體는 대부분 두 손으로 笏을 잡고 있거나 손을 깎지끼고 가슴 위에 모으고 있는 모습이 주류를 이룬다. 동자석은 50~100cm 내외인데 頭部는 身長의 3等身の 比例로 몸에 비하여 기형적인 巨頭를 이루고 있다.(표 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자석의 平均身長: 平均頭部の 길이는 67.3cm: 22.2cm로 頭部는 身長의 3等身の 比例를 갖는다. 그러므로 동자석의 比例는 한국인의 身體 比例表(표 2)와 비교해 볼 때 출생~1세의 等身比例 보다 더 큰 頭部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동자석의 平均身長은 67.3cm로 幼兒의 身長에 準하였으나 平均 頭部는 22.2cm로 成人의 頭部の 크기 만큼 誇張되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정상적인 人體의 比例보다 훨씬 크게 과장한 頭部는 의도된 것으로서 동자석이 神格화된 채 顔面의 인상에서 주는 의미를 빠르고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며 또, 어린아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強調한 표현수단이다. 반면에 다리는 省略되고 팔은 가늘게 變形되거나 省略되어 胴體는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표 1. 童子石의 身長과 頭部の 比例表

圖	18	19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32	33
身長 (cm)	51	64	62	65	56	81	88	54	54	56	55	54	55	74	61	61
頭部 (cm)	20	21	22	30	28	23	24	22	20	18	19	19	19	23	19	19
比例	2.6	3.0	2.8	2.2	2.3	3.5	3.6	2.5	2.7	3.1	2.9	2.8	2.9	3.2	3.2	3.3

圖	34	35	36	37	39	40	42		43		44		47		61	62	평균
身長 (cm)	59	60	90	58	70	63	62	67	82	75	62	67	89	90	88	82	67.3
頭部 (cm)	21	20	22	22	26	24	18	19	22	23	18	20	25	24	34	29	22.2
比例	2.8	3.0	4.1	2.6	2.7	2.6	3.4	3.5	3.7	3.3	3.4	3.4	3.6	3.7	2.6	2.8	3.05

표 2. 한국인의 身體 比例表²⁶

연령별	출생~1세	2세	8세	14세	성인
等身比例	4	4.5	6.5	7	7.5

儒佛仙의 인생관을 기본으로 하여 소박한 생활을 이상으로 삼아왔던 제주도민은 동자석의 표현에 있어서도 조작하지 않으려했고 단순함을 꾀하여 소박하고 담담한 造形美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도 18, 도 19, 도 20, 도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전체적인 조화에 힘쓰면서 形態를 완성하고자 하는 소박한 제작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單純한 形態속에 표현을 절제하여 얼굴의 세부를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지만 造形된 표현의 세계를 보여주는 기교는 그 심리적 바탕에 외적표현 보다 내적표현에 치중하여 원초적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童子石은 外的表現으로서 사내아이 자체를 묘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內的表現으로서 島民의 靈魂不滅의 理想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 외에도 不動의 자세로 마주 보고 서있는 童子의 형상속에 靈魂을 강조한 心理的 精神的 힘이 작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형태에 象徵的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童子石의 표현은 胴體를 대부분 四角柱나 圓柱形의 단순한 양괴속에 표현하였는데 형태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일은 島民의 순박한 心性과 생활감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형태가 단순하면 할수록 보는

²⁶ 김 봉구 (1982), 「美術解剖學」(서울:금화출판사), pp. 191-94.

이에게 즉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의미전달을 위한 최소한의 표현으로서 volume 을 절제하였고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해버림으로써 單純化를 추구하였다.

형태를 단순화 하는 특징은 얼굴처리나 신체의 부분처리에 있어서 정밀한 표현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線과 面만을 강조하였고 細部는 거의 線刻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형태의 단순화에 따른 필연적인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또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룰 수 없는 玄武岩이 갖는 材質의 特性 때문이기도 하다

도 22, 도 23, 도 24는 원형의 얼굴에 몸통의 양감은 四角柱形의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顔面은 음각선으로 처리하여 단순화 하였다. 도 25의 안면은 눈썹과 눈을 가는 線刻으로, 입은 뚜렷하게 굵은 線刻만으로 표현하였는데 얼굴의 인상이 전달되어 온다.

도 25, 도 26, 도 27은 똑같이 단순하게 線刻으로 안면을 처리했지만 도 25는 입자가 면밀한 粗面岩인데 비해 도 26, 도 27은 多空質의 玄武岩이기 때문에 材質에 따라 線은 단순하지만 느끼는 감정은 다르게 나타난다.

신체의 부분에 있어 손과 하반신의 의상을 단순하게 線刻으로 표현한 도 28, 도 29, 도 30, 도 31에서 도 28 - 左는 하반신을 단순한 수직의 線으로 처리함으로써 단조로움을 없애주고 있으며 도 28 - 右는 굵은 線刻으로 동그란 눈과 입술을 陰刻하였고 가는 線刻으로 손가락을 묘사함으로써 필요한 線과 面만을 강조하여 양각과 음각의 조화를 이룬다. 도 29, 도 30은 단순하고 뚜렷한 線으로 강조하여 좌우대칭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마와 아치형의 눈썹과 눈의 굵고 넓은 음각은 광선에 따라 눈의 표정을 달리 보이게 한다. 또 손가

락을 음각으로 처리한 수법은 최소한의 표현으로서 volume을 절제시키며 材質의 특성을 살린 적합한 표현이라 하겠다. 도 31은 수직과 수평의 직선의 조화로 손과 옷주름을 간단하게 표현하여 음각과 양각의 효과를 살렸다.

童子石의 표현은 外的表現 보다는 內的表現에 치중하였고 島民의 순박한 심성과 생활감정의 반영으로 volume을 절제하여 單純한 형태를 이루며 부분적으로 線刻 處理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童子石은 自然石에 가까운 돌 또는 四角의 돌기둥에 단정한 자세로 左右對稱構圖로서 동일한 양식을 취하고 있지만 풍부하고 개인적인 표정에서 각 동자석마다의 새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童子石은 童子, 童僕의 모습을 기본으로 하여 충직하고 위풍당당한 수호신적인 형용을 나타내고자 하였겠지만 제작한 결과는 순박한 도민성의 투영으로 소박하고 단순하며 해학적이다.

도 32, 도 33은 둥근 童顔과 笏을 쥔 모습이 장난기 넘치고 순진하여 도무지 잡귀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도 33은 머리와 눈의 위치가 함께 기울어져 있고 입을 벌리고 있는 인상이 무척 해학적이다. 근엄하고 경건한 표현보다는 표현수법이 미흡하고 古拙하지만 도 33, 도 34, 도 35와 같이 소박하고 어리석은 맛을 풍기는 표정과 도 36, 도 37과 같이 인자하고 평온한 우리의 이웃, 친구와 같은 표정 속에서 더 가까이 전달되는 人間美를 느끼게 된다.

도 38, 도 39, 도 40, 도 41은 平面的인 안면에 눈과 입을 음각선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고 안면 중 三角錐의 높은 코에 내면적인 긴장감이 집중되어 당당한 守護神의 역할을 하는 기세를 보이며, 눈을 무

쉽게 뜨고 一字形의 입을 꼭 다물고 있어 용맹스럽고 강렬한 힘이 밖으로 발산되고 있다.

도 42, 도 43은 눈꼬리를 위로 치켜떠서 무서운 분위기로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위협감을 줄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좌우대칭의 구도속에 胴體가 아래로 갈수록 넓어져 안정감이 있으나 頭頂骨을 압박한 듯 머리가 납작하고 이마가 튀어나오게 표현되어 側頭骨과의 경사가 심하여 괴기스러운 느낌을 준다. 도 43은 뾰족한 턱을 笏로 받치고 있고 左右對稱의 構圖속에서 전체 형태가 직육면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頭像을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얼굴 표현에 있어 外形을 사실적으로 충실히 묘사한 도 44는 생생한 표정을 지어 인간적인 체온을 느끼게 하며, 따뜻하고 평안한 눈매와 입에 웃음기를 머금고 있는 표정이 살아있는 듯한 生命力을 호소한다. 도 45, 도 46의 둥글고 높은 두정골은 마치 성인 남자의 머리와 같게 보이며 이마의 깊은 주름은 이마와 눈의 구분을 확실히 하고 眼球를 두른 눈의 윤곽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타원형의 얼굴에 눈에서 코까지의 길이를 늘였고 특히 顴骨의 양감을 잘 표현함으로써 여유있고 너그러운 好人の 인상을 풍긴다. 顴骨의 과장에 비해 턱은 작지만 입의 사실적인 묘사와 안면의 굴곡을 잘 처리하여 立體感을 훌륭히 나타내었다.

역사적으로 수난을 극복하며 살아왔던 濟州島民들은 슬픔과 괴로움을 자기 속에서 스스로 정화하여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이러한 기질은 도 47, 도 48, 도 49, 도 50, 도 51 같이 동자석의 무표정한 얼굴에 신비로운 미소를 띠며 격조 높게 표현되었다. 도 47, 도 48은 둥근 얼굴의 중심에 날카로운 코와 일직선을 이루는

笏이 左右對稱의 均衡을 잘 잡고 있으며, 도 51은 다른 동자석에 비해 의상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좌우대칭의 구도속에 十字形의 옷주름이 양각으로 돌출되어 立體感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풍부하고 개인적인 표정을 가진 동자석은 佛像의 근엄하고 경건한 표현이나 장승의 험상궂게 과장되어 무서운 공포감을 주는 표현과는 달리 조그만 우리 아이들의 작고 古拙한 표현에서 더욱 더 인간적인 친밀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해 준다. 그들의 표현이 세련되거나 정교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童子石의 다양한 표정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그 조각이 活氣가 있고 생명력을 지녔다는 의미라 할 수 있겠다. 童子石이 지니는 生命力은 精靈과 交流를 하리라는 濟州民의 精神 世界와 宇宙觀을 반영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동자석은 심미적인 기준과는 달리 영원한 인간성을 필연적인 형식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童子石은 주로 正面性을 위주로 한 형태이지만 後面에 頭髮을 묘사함으로써 造形의 다른면을 보여준다. 童子石의 頭髮은 좌우대칭의 구도속에 땅아 늘인 머리, 길게 늘인 머리, 민머리의 세가지 樣式을 취하고 있다.

도 52, 도 53은 頭髮을 세 가닥으로 땀은 옛 처녀, 총각의 머리로 땅아 늘인 머리 양식이다. 도 54는 땅아 늘인 머리의 끝부분에 땀기를 달아 장식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였다. 땅아 늘인 머리는 좌우대칭의 중심에 위치한 두발이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두발의 끝부분을 두 갈래로 나누었으며, 사실적이며 장식적인 표현으로 도식적인 線刻 위주로 표현되었다.

도 55, 도 56, 도 57은 길게 늘인 머리 양식으로 童子石 중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다. 頭髮을 귀 뒤로 모아 길게 늘어뜨려 後面의 단조로움을 없애주며 側面에서의 거리감을 주고, 後面의 중앙에 있어 좌우대칭의 중심을 이룬다. 도 58은 길게 늘인 머리를 衣裳과 頭髮의 구분을 위해 단지 線刻으로 陰刻하였는데 추상적으로 도식화된 특징이라 볼 수 있으며 形式化된 의습과 통일된 樣式으로 표현되었다.

민머리 양식은 도 59, 도 60처럼 머리에 어떤 장식도 없이 아이들의 짧은 머리처럼 표현되고 있다.

童子石은 양팔을 胴體에 밀착시켰거나 어떤 경우는 양팔이 胴體에 흡수되어 直立 不動의 자세로 凍結된 인상을 받게 된다. 동자석들은 대부분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반듯하고 단정한 자세로 좌우대칭 구도로서 단순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포즈에서 변화를 가져와 靜中動의 움직임을 시사하는 동자석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쌍의 동자석은 거의 동일한 손의 형태와 자세를 갖지만 도 61, 도 62는 한 쌍이면서도 손의 위치를 달리함으로써 변화를 주고 있다.

도 61은 두 손의 끝이 닿을듯 말듯하게 가슴 앞에 모았는데 도 62는 上下로 교차시킨 두 손을 동체의 중앙에 위치하게 하여 변화를 주었다. 또 도 61, 도 62는 목의 생략된 정도를 달리하여 뾰족한 턱이 가슴에 묻힌 형태에도 변화를 주었고, 도 61은 눈이 양각으로 돌출한데 비해 도 62는 陽刻의 눈에 眼球를 陰刻의 線으로 묘사하여 눈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도 63, 도 64, 도 65는 손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 다른 동자석들에 비해 활력이 넘친다. 도 63은 양각으로 두드러진 두 손이 위치와 방향을 엇갈리게 하여 유연한 포즈로 자연스럽다. 등근 童顏에 이국

적인 얼굴의 표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손의 변화된 포즈는 몸 전체의 균형을 균등히 유지하고 다음 동작을 암시하면서 살아 호소하는 듯한 生動感을 준다.

童子石들은 한 쌍에 있어서도 도 25 와 같이 크기의 변화를 주며 도 16, 도 17, 도 26, 도 27, 도 32, 도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笏을 잡은 손의 자세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였다. 도 66, 도 67은 한 쌍이면서도 전혀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도 28 과 같이 표현양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수법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童子石의 표현은 左右對稱의 構圖에서 다양한 표정 및 頭髮의 樣式化를 이루며, 자세와 표현기법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童子石에는 상징적 의미와 守護神的인 目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때때로 과장된 표현을 하였는데 全體的으로 과장되거나 혹은 部分的으로 과장시키기도 하여 독특한 造形的 特徵을 이루고 있다.

도 68은 圓形과 直線을 이용한 幾何學的인 構圖로 胴體는 단지 상반신으로 형성하였는데 어깨와 팔을 변형시켜 正面을 중심으로 四角의 틀을 만들고 손과 원형의 笏을 幾何形態로 양식화하여 胴體를 단순화 하였다. 의상과 동체가 완전히 省略된 도 69, 도 70, 도 71에서 도 69는 자연석의 材質을 그대로 이용하여 패여진 홈이 胸部와 하반신으로 자연스럽게 나뉘게 하였고, 도 70은 전체 형태가 長方形의 통일된 형태로 변형되어 胴體에 불규칙한 빗살 무늬를 새김으로써 단조로운 mass를 극복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도 70은 통일된 四角柱에 마치 수직으로 서있는 장승처럼 頭部와 省略된 하반신을 이룬 것이 특색이다. 頭部와 동체가 더욱 단순화된 도 71은 장식이 전혀 없는 四角柱의 몸통으로 과감하게 省略되어 얼굴의 원형과 몸통의 四角柱

의 機何學的인 형태의 결합으로 조화시킴으로써 抽象的인 性格을 띠는 形態로 접근하여 造形의 生命性을 얻어내고 있다. 平面化 된 얼굴 위에 눈과 코가 단순한 기하학적 입체로 배열된 도 71의 얼굴은 도 72에서는 대담하게 생략하여 이마로부터 수직으로 내린 코가 얼굴의 中心에 길게 強調되었고 눈과 입을 최소한의 線刻으로 묘사하였는데 눈을 一字로 한쪽만 陰刻하는 변화와 절제된 線의 造形性을 보여주고 있다. 도 73, 도 74에서는 눈과 입을 없애고 平面的으로 표현된 圓形의 얼굴 중앙에 사각기둥의 길다란 코 하나만을 양각으로 돌출시켜 과감한 省略法을 구사함으로써 抽象的인 造形感覺이 뛰어난 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형태가 본질적으로 四角形에 기반을 둔 도 68, 도 71, 도 72, 도 73은 둥근 형태와 사각 형태의 機何學的인 결합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도 72, 도 73은 機何學的 面의 분할을 이용하여 전체를 머리, 상반신, 하반신으로 3등분 하였고, 손의 표현수법은 얼굴의 표현과 통일되고 전체 형태와도 자연스런 통일감을 이룬다.

童子石의 표현은 대담한 변형과 생략 및 강조 처리 기법 그리고 機何學的 構造의 결합을 통해서 抽象的인 성격을 띠는 조각에 접근하고 있다.

도 75, 도 76은 어깨로 부터 팔과 손이 생략되어 단순한 量塊로 표현되었다. 어깨와 구분이 없는 팔이 胴體에 흡수되어 側面에서의 거리감과 공간감을 가지지 못하고 正面性을 위주로 한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절제된 量感에서 팔의 立體感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체 덩어리에서 가슴을 음각 처리하여 팔과 손이 凹형태로 쪼

曲되었다. 도 75, 도 76이 반듯한 四角의 형태로 양식화 된 도 77은 形式的이며 기하학적인 형태로 어깨, 팔, 손이 단순하게 변형되었다. 도 78은 長方形의 胴體에 팔이 밀착되어 있으며 機何學的으로 形式化된 笏과 손이 가슴 중앙에 경사를 이루며 모아졌다. 도 79는 자연석에 가까운 형태의 돌을 단순하게 3등분 하여 머리, 가슴, 하반신으로 나누었는데 둥글고 큰 頭部에 비해 팔과 손이 歪曲되어 전체적으로 變形되고 歪曲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顔面에 있어 部分的으로 과장한 형태는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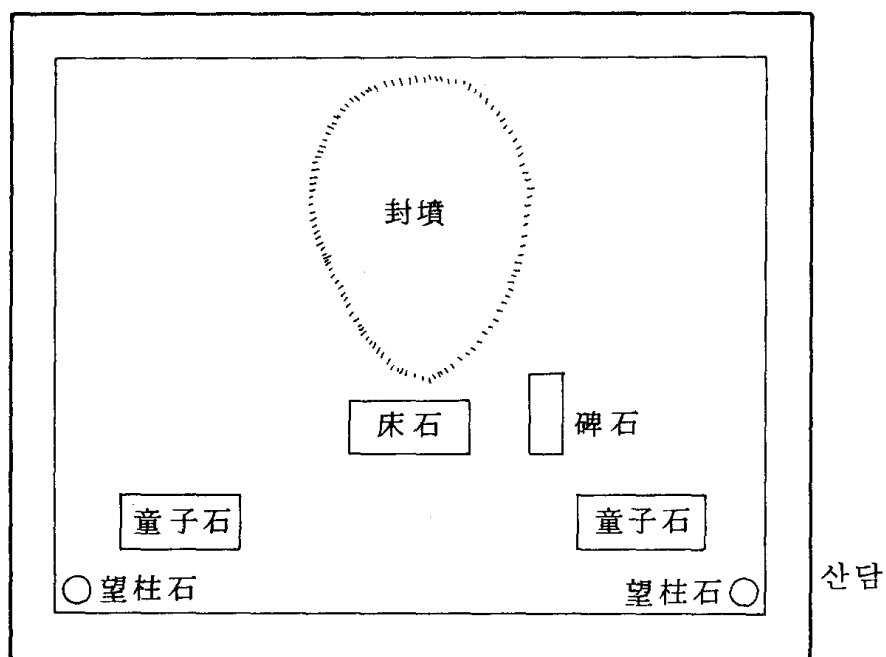
눈을 과장한 도 80, 도 81은 인간의 눈과는 달리 球形의 눈을 동그랗게 표현하여 안면에서 부터 양각으로 돌출시켰는데 이러한 표현은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똑바로 주시하고 있는 형상을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로 보인다. 도 82, 도 83은 위로 치켜 올린 타원형의 눈이 양각으로 튀어나와 전체적인 형태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도 83의 표현은 웅맹스러운 守護神의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도 84, 도 85는 마치 寺刹의 四天王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 처럼 눈을 크게 誇張하여 어떤 不義도 용납치 않고 어떤 雜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守護神으로서의 威容을 과시한다. 도 86은 동그란 眼球를 두텁고 큰 외곽을 두른 것은 눈을 더욱 크게 보일려는 효과와 눈이 갖는 위력을 최대한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코를 과장한 도 87, 도 88, 도 89에서 도 87은 얼굴의 길이가 22cm에 비해 사각뿔형의 코가 12cm로 자연적인 비례보다 길고 높게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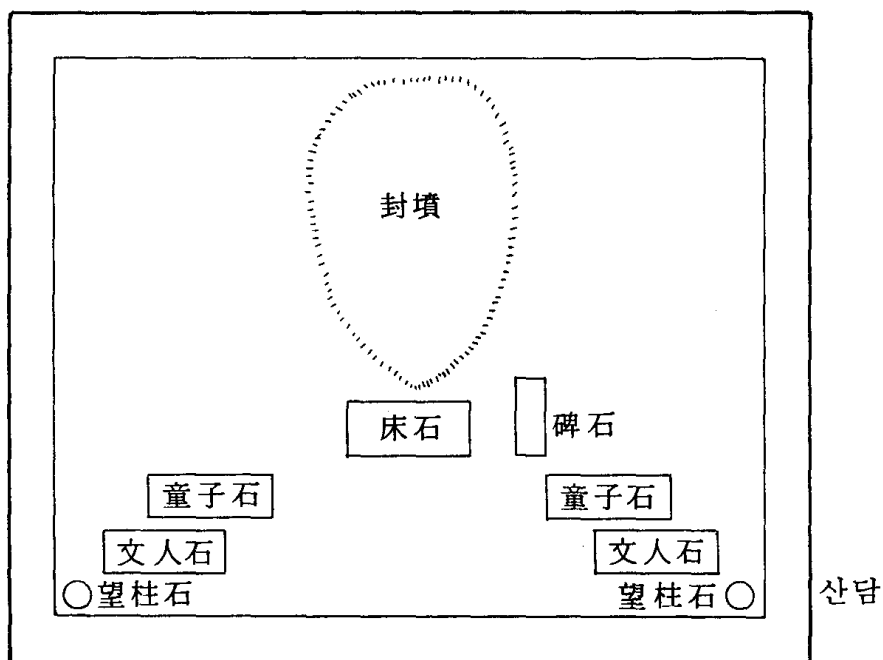
장되어 내면적 긴장감이 코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도 88은 平面的인 얼굴에 사각뿔의 코가 크고 묵직하게 立體的으로 표현되었다. 도 89 역시 平面的인 얼굴에 길다란 코가 융기 되었는데 오목으로 음각한 눈 때문에 코가 더욱 크게 부각되어 보이며 전체 형태와 균등한 균형을 유지한다.

도 90은 인간의 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과장한 큰 귀가 두툽한 양감으로 立體的인 구성을 하여 머리의 側面 部分을 거의 차지하고 있지만 全體的인 形態와 均等한 均衡을 갖는다. 도 91, 도 92는 표현양식이 동일한 수법으로 보이며 특히 양감을 살린 길고 널직한 귀가 공통적으로 도 91은 눈에서 코까지의 길이가 길게 과장된 것에 맞추어 균등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童子石은 全體的, 部分的인 과장을 통해서 대칭적 비례와 전체 형태와의 균등한 균형미를 유지한다.



도 1



도 2



도 3



도 4



도 5



도 6



도 7



도 8



도 9



도 10



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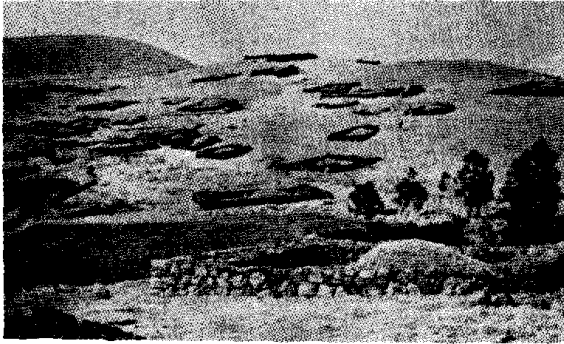
도 12



도 13



도 14



도 15



도 16



도 17



도 18



도 19



도 20



도 21



도 22



도 23



도 24



도 26



도 27



도 28



도 29



도 30



도 31



도 32



도 33



도 34



도 35



도 36



도 37



도 38



도 39



도 40



도 41



도 42



도 43



도 44



도 45



도 46



도 47



도 48



도 49



도 50



도 51



도 52



도 53



도 54



도 55



도 56



도 57



도 58



도 59



도 60



도 61



도 62



도 63



도 64



도 65



도 66



도 67



도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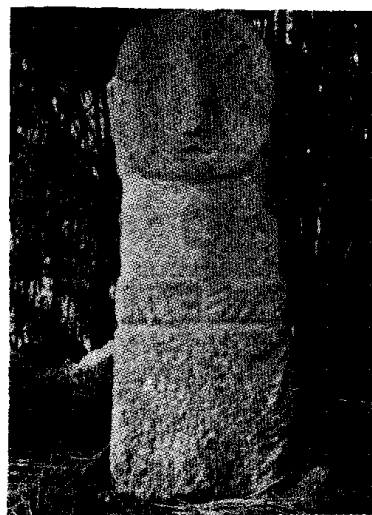
도 69



도 70



도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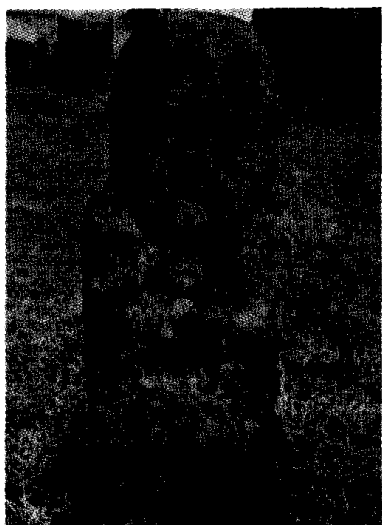
도 72



도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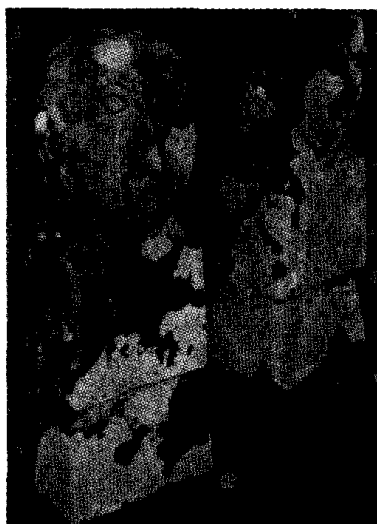
도 74



도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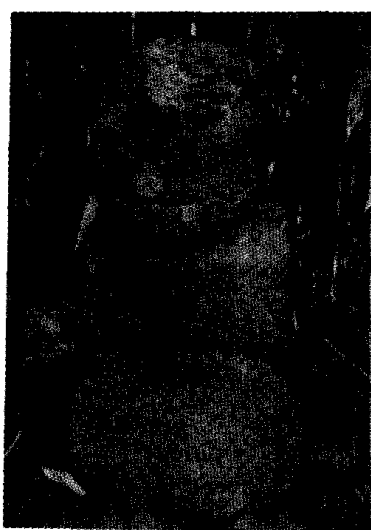
도 76



도 77



도 78



도 79



도 80



도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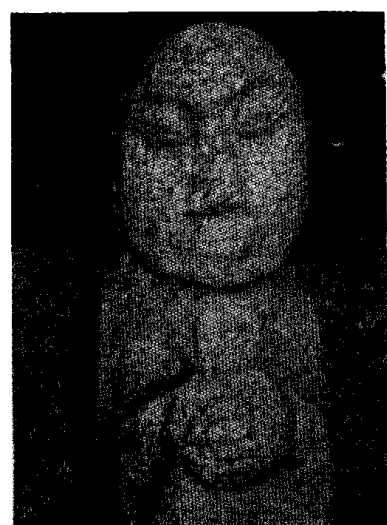
도 82



도 83



도 84



도 85



도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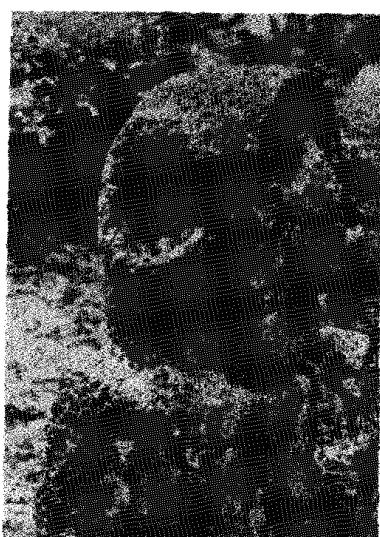
도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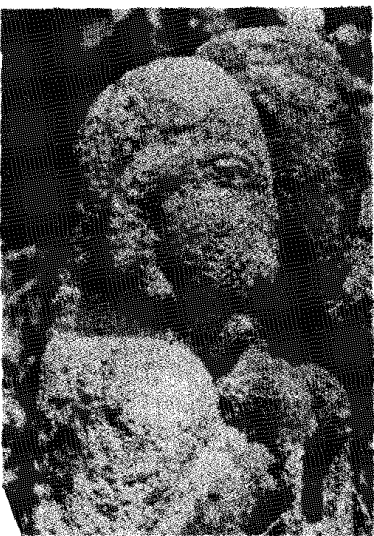
도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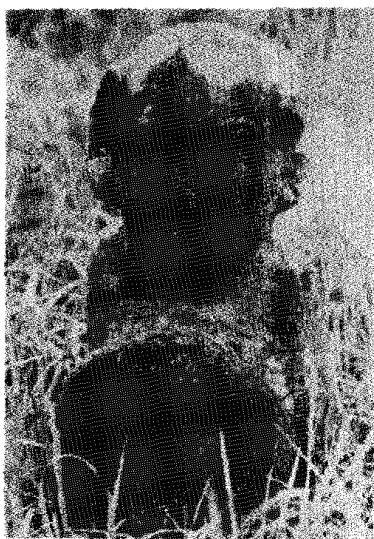
도 89



도 90



91



도 92

IV. 結 論

본 연구는 濟州 墓所의 童子石을 中心으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른 彫刻樣式과 濟州 石像이 갖는 性格을 알아보고자 童子石의 形態를 造形的으로 分析하였다.

연구의 結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頭部를 자연 비례 보다 크게 하고 하반신을 생략한 것은 의미전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의도된 표현 수단이며 단순한 mass의 조화로 頭部는 身長의 3等身の 비례를 갖는다.

둘째, 外的表現 보다는 內的表現에 치중하였고 島民의 순박한 심성과 생활 감정의 반영으로 單純한 形態와 부분적인 線刻處理로 음각과 양각의 조화를 이룬다.

셋째, 左右對稱의 構圖에서 다양한 표정 및 頭髮의 樣式化를 이루며 자세와 표현기법에서의 변화가 나타난다.

넷째, 대담한 變形과 省略, 強調 處理技法 및 幾何學的 構造의 결합을 통해서 抽象的인 性格을 띠는 조각에 접근하고 있다.

다섯째, 全體的 部分的으로 과장을 하였지만 전체 형태와의 균등한 균형미를 유지한다.

이와같이 童子石은 頭部를 강조하였고 단순한 형태와 부분에 있어서 線刻 處理를 하였으며, 좌우대칭 구도 속에서 대담한 변형과 생략을 하기도 하며 전체적 부분적으로 과장하는 조형적 특징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參 考 文 獻

- “오름, ” 「濟州年鑑」, 1976, 제주:제주연감사, p. 121.
- 「家庭儀禮大百科」, 1983.
- 국사편찬위원회(編)(1984), 「韓國史」, 서울: 탐구당.
- 그리피스, W. E. (1985), 「隱者の 나라 한국」, 서울: 평민사.
- 김 봉구(1982), 「美術解剖學」, 서울: 금화출판사.
- 김 성희(1985), “韓國 文人石에 관한 연구,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미간행).
- 김 영돈(1972), “濟州 大靜 旌義 州縣城 石像, ” 「문화인류학」, 제 5 집, pp. 33~47.
- _____(1968), “濟州島의 石像 石具, ”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 제 50 호, 서울: 문화재관리국.
- 김 원룡(1968), 「韓國美術史」, 서울: 범문사.
- _____, “李朝王陵의 石人彫刻: 이조 조각 양식의 변천, ” 「아세아 연구」, 제 2 권 2 호(1959년 12월).
- 김 종업(1980), “濟州島 略史, ” 「濟州年鑑」, 제주: 제주연감사.
- _____, “역사적으로 본 분묘의 변천과정, ” 「제주도」, 제 27 호(1966년 10월).
- 김 종천(1982), “무속에 나타난 제주도민의 생활의식,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미간행).
- 리이드, H. (1954), 「조각이란 무엇인가」, 최 회숙(역), 서울: 열화당, 1984.
- 석 주선(1978), 「한국 복식사」, 서울: 보진제.

- 아른하임, R. (1974), 「미술과 시지각」, 김 춘일(역), 서울 : 홍성사, 1986.
- 우 낙기 (1965), 「제주도」, 서울 : 한국 지리연구소.
- 유 영교 (1976), “조선왕조 후기 王陵의 石人 石獸 연구,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미간행).
- 유 철희 (1970), “한국장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미간행).
- 이 상일 (1979), 「한국의 장승」, 서울 : 열화당.
- 이 종철 (1982), “장승 신앙에 관한 연구, ”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미간행).
- 이 찬우 (1985), “조선시대의 文武人石에 관한 연구 : 王陵을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미간행).
- 임 홍선 (1983), “제주도 전설에 드러난 제주도민의 의식연구, ” 숭전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미간행).
- 제주도교육연구원(編) (1983), 「옛 제주의 민속·세시풍속·민요」, 제주 : 제주도교육연구원.
- 조 요한 (1973), 「예술철학」, 서울 : 경문사.
- 진 성기 (1975), 「남국의 민속 : 제주도 무속」, 서울 : 교학사.
- _____ (1980), 「남국의 신화」, 서울 : 평범사.
- 황 수영 (1964), “이조의 조각, ” 「미술총감」, 서울 : 예술원.
- 현 용준 (1976), 「제주도 신화」, 서울 : 서문문고.
- _____, “종교 민속면에서 본 暗埋葬의 개선, ” 「제주도」, 제 27 호 (1966 년 10 월).

Nemeth , D . “ Graven Image and Cosmic Landscape on Cheju Island ,’
Korean Culture , March 1968 .

ABSTRACT

A STUDY ON THE STONE-STATUE IN CHEJU
—STRESSING ON THE DONGJASUK (TOMB GUARD)
AROUND THE GRAVEYARD —

JO Yun-deuk
Department of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Among the folk cultures in Cheju, Tomb Guard around the graveyard, having been handed down with the Topologism and the local religion through the generations, has become a traditional stone-statue formed in the basic cultures.

Grave Guard reflects the climate, the temper and the way of life, of Cheju. It has its own originality with its forms and the method of formation. Therefore, it is worthy to study the stone-statues and their characters representing their produced day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distinguished characters of the forms of the stone-statue in Cheju through analyzing and clarifying them.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 as far as Tomb Guard, excluding other stone-statues, is concerned, I examine its

form, its function and its world view expressed on the stone-stature.

I took the works and its references as a basic tools and surveyed the field work as the central method to study the characters of the statures. And I chose 63 pieces of stone-stature which showed the distinctive characters.

The results that I have found through this study are: Tomb Guard shows emphasized upper part (especially head), has very simple forms, symmetry structure, and the characters of broad transformation, omission, or exaggerated parts against the whole.